

2009. 6. 23

글로벌 철강 무역전쟁 시대의 도래와 시사점

박현성, 공문기

Executive Summary

글로벌 철강 무역전쟁 시대의 도래와 시사점

-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세계 철강시장도 급속히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철강교역에도 타격
 - 미국 등 선진국은 극심한 자동차 판매 부진 영향으로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강재수요가 전년비 20% 이상 급감하고, 중국과 동남아 등도 감소세로 반전함에 따라 2009년 세계 강재수요는 14.2% 감소 예상

- 주요 철강수입 시장에서는 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가격 급락과 보호주의 강화라는 악재가 잇따르는 상황
 - 세계 최대 수입시장인 미국에서는 강재수입 감소폭이 계속 증대되어 2월 현재 전년비 37.5%나 급감했고, 일본도 예년의 50%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중국과 동남아도 수입 감소 추세 지속
 -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가 수입재의 무차별적인 덤핑 공세로 동남아와 미국 등 주요 수입시장에서의 수입가격은 약세를 지속
 - 한편 수입시장 위축 영향으로 구미 지역에서 비롯된 보호주의 조치가 중국과 동남아 등 세계 각국으로 확산 중

- 보호주의 움직임이 강화되는 가운데서도 중국 등 주요 수출국들은 내수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수출확대에 총력
 - 중국은 지난해까지 수출억제정책의 기초를 180도 전환, 적극적인 수출장려정책을 시행 중이며, 일본도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차원에서 수출관련 조직 정비 등을 통해 수출 확대 도모
 - 대표적 순수출국가인 CIS도 수출대상 지역의 전환을 통해 수출 확대에 전력을 기울여 지난해 10월을 저점으로 서서히 회복 중

- 향후에도 글로벌 철강교역 시장은 한 축에서는 시장 방어, 또 다른 축에서는 시장 침투를 위한 이율배반적 정책이 빈번해 질 듯
 - 결국 보호주의 무역이 강화되는 상황 하에서는 불황기 마케팅과 함께 보다 근원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



Contents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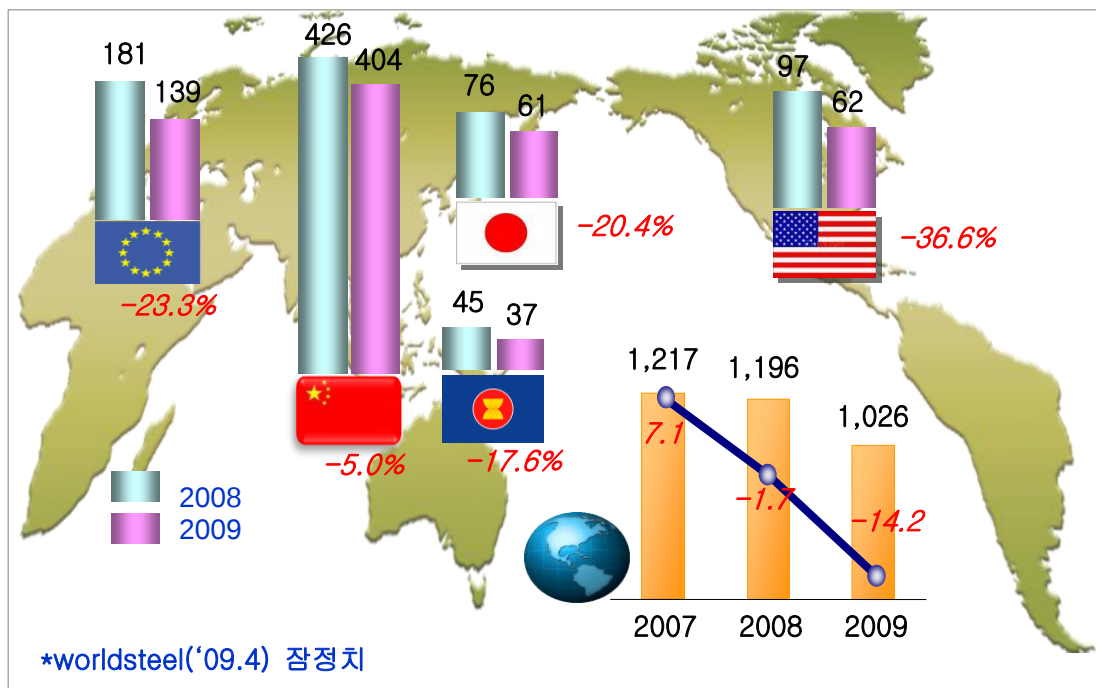
I. 위축되는 글로벌 철강시장	1
II. 철강 수입시장도 악순환에 직면	2
III. 철강수출국은 수출확대에 전력	6
IV. 향후 전망과 시사점	9

I. 위축되는 글로벌 철강시장

□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세계 철강시장은 금년 들어 급속히 위축

- 미국은 가장 극심한 침체를 보이는 지역으로 자동차판매 감소율이 금년 4월까지 연속적으로 30%를 상회. 이에 따라 강재수요는 2008년 9,700만 톤에서 금년 6,200만 톤으로 전년비 36.6% 급감 예상
- 이러한 상황은 EU와 일본 등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EU 지역 강재수요는 2008년 1억8,100만 톤에서 2009년에는 1억3,900만 톤으로 전년비 23.3%나 감소하고, 일본도 동 7,600만 톤에서 6,100만 톤으로 20.4% 감소할 전망
- 중국과 동남아 등 신흥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감소폭은 크지 않으나,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함으로써 세계 전체적으로 강재수요는 2008년 1.7% 감소에 이어 2009년에도 14.2% 감소 예상

〈세계 강재수요 전망, 백만 톤〉



□ 세계 철강 교역시장도 유례 없는 위축 속에서 딜레마에 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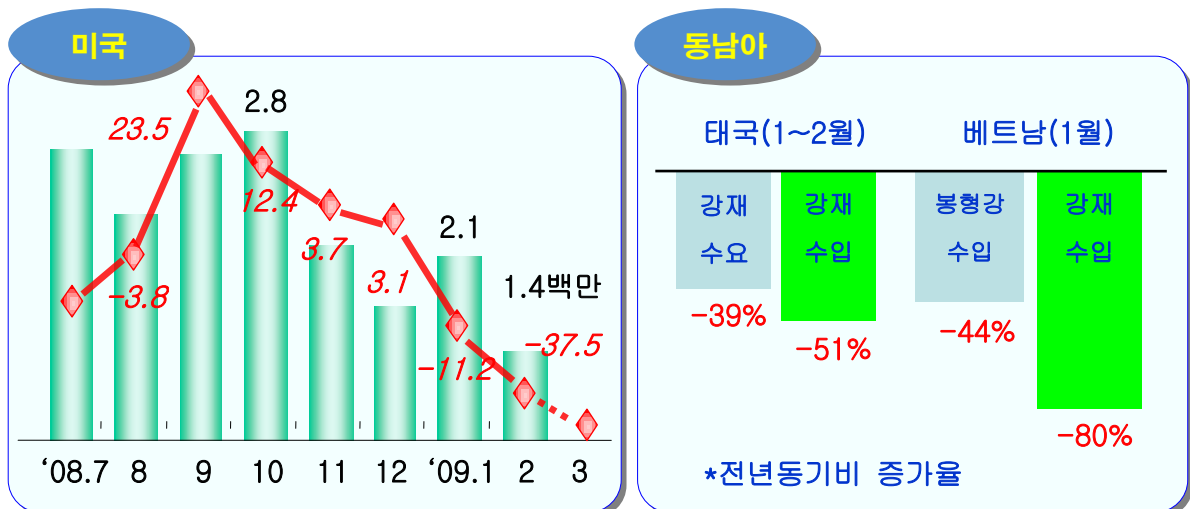
- 세계 각국 시장이 축소되는 가운데, 내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수출은 확대할 수밖에 없는 이율배반적 상황
- 참고로 WTO는 금년 세계 전체무역이 전년비 9% 감소함으로써 60년 만에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Ⅱ. 철강 수입시장도 악순환에 직면

□ 이에 따라 주요 철강 수입시장에서는 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가격 급락과 보호주의 강화라는 악재가 잇따르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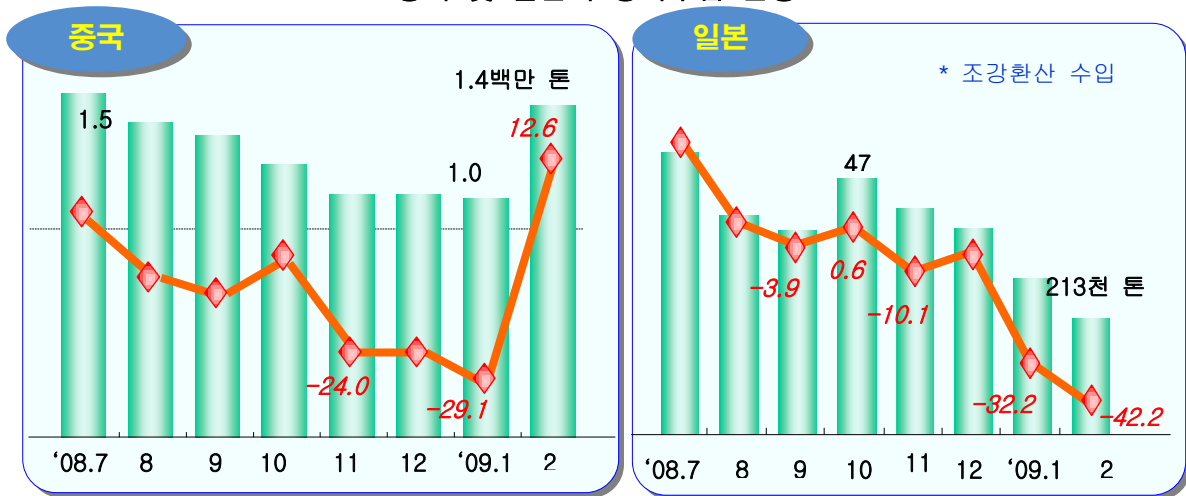
- 세계 최대 수입시장인 미국에서는 강재수입 감소폭이 증대되어 2009년 2월 현재 전년동월비 37.5%나 급감
 - 제품별로는 반제품 수입이 전년동월비 -80.4%로 가장 감소폭이 크고, 열연은 33.3%, 냉연은 17.4%, 도금제품은 16% 각각 감소
 - 지역별로는 최대 수출국인 한중일 3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전월비 40%나 급감
- 한편 동남아 지역에서는 수요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산 수입은 급감한 반면, CIS(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산 물량은 급증

〈미국 및 동남아 강재수입 현황〉



- 중국은 2009년 1월~2월 누계기준으로 전년동기비 9.6% 감소로 타 시장에 비해 감소폭이 미미. 그러나 러시아산은 열연 등 판재류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비 6.7배나 증가. 반면 한/일/EU산은 10% 이상 감소
- 일본도 수입시장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2월 현재 철강재 수입은 예년의 50% 수준인 21만3,000톤에 그치고 있으며, 제품별로는 열연(64%)과 아연도(57.8%)가 수입 감소 주도

〈중국 및 일본의 강재수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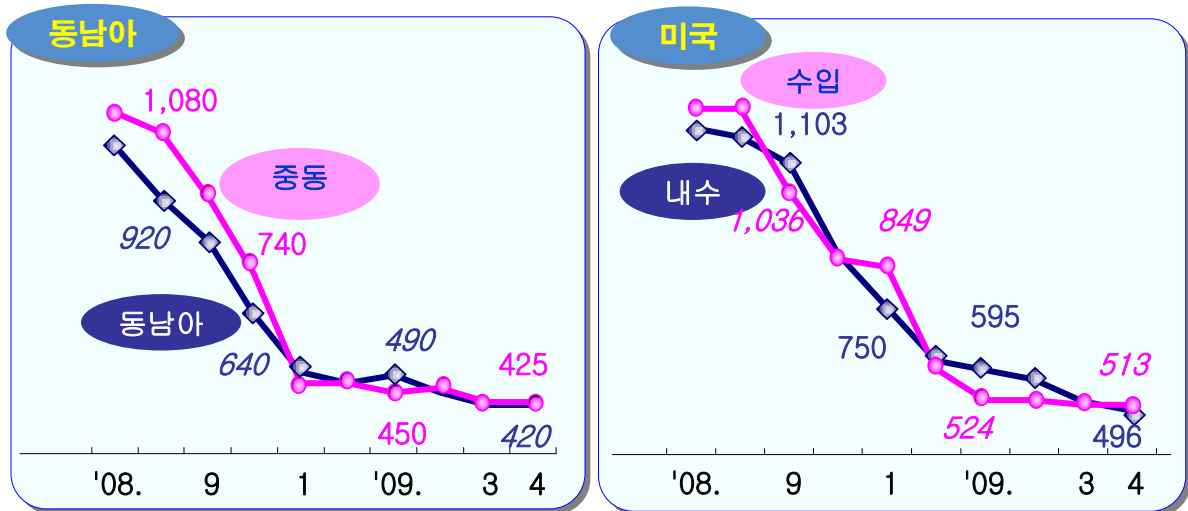


□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가 수입재의 무차별적인 덤핑 공세로 동남아와 미국 등 주요 수입시장에서의 수입가격은 약세 지속

- 동남아는 미국과 함께 세계 최대 수입시장이며 동시에 가장 가격 경쟁이 치열한 시장. 전반적인 수입 감소 속에서도 CIS산 저가강재의 유입은 확대됨으로써 가격이 교란
 - 동남아 지역으로의 열연코일 수입가격은 지난해 7월 톤당 1,000달러를 상회했으나, 이후 급락세를 지속하여 금년 4월 현재 톤당 420달러를 기록 중. 중동 지역으로의 수입가격도 동 1,080달러에서 425달러로 급락
- 미국에서도 금년 4월 열연 내수가격이 톤당 500달러 이하로 하락하면서 수입가격도 500달러 대 초반까지 급락

- 일본에서는 중국과 CIS산 저가 열연코일이 톤당 400달러대에서 진입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일철 등 고로메이커를 중심으로 수입재 증가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하면서 유입에 한계
- 유럽에서는 중국산과 동유럽산 저가 철강재가 항구에 적체되어 있고, 이 지역 내수가격에 비해 6%~18% 저렴. 따라서 동 지역 철강사가 가격 인상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무산되는 상황

〈동남아 및 미국 시장 열연코일 수입가격 추이, \$/톤〉



□ 한편 수입시장 위축 영향으로 구미 지역에서 비롯된 보호주의 조치가 중국과 동남아 등 세계 각국으로 확산 중

- 우선 미국에서는 오바마 정부가 뉴딜 정책의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자국산 철강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Buy America’ 조항을 입법화했고, 최근에는 주정부로 확산되어 ‘Buy Indiana’ 조치가 대두
- EU 지역에서는 AD(반덤핑) 제소 대상 국가가 우크라이나와 브라질 등 신흥국에서 이태리 등 선진국으로 확대되고 있고, 대상 제품도 후판과 강판에서 열연으로 확대되는 추세
- 한편 중국에서도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철강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잇달아 단행
 - 호북성에서는 동풍기차와 무창조선에 대해 무한강철산 강재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안휘성에서도 체리/안휘/창허 기차에 대해 마안강철산 강재를 사용토록 권고

- 동남아에서도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을 활용하여 저가 외국 철강재의 덤핑 수입을 억제하려는 움직임 강화
 - 2008년 12월 베트남에서 빌렛 등 반제품 수입관세 인상 조치를 시작으로 금년 3월에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도 반덤핑 조사 및 수입심사 규정을 강화하는 등 무역규제 강화 조치가 확산

<동남아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강화 조치 내용>

	2008년 12월	2009년 3월	2009년 4월
관세장벽	베트남, 빌렛 등 수입관세 인상	인니, 반덤핑 조사	베트남, 수입관세 추가인상 태국, STS CR 반덤핑관세 부과 5년 연장
비관세장벽	-	태국, 수입심사 규정 강화	필리핀, 봉강 세이프가드 발동 인니, 수입사전 등록 및 검사 의무화

- 지난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기간의 경기 침체기에도 보호주의가 기승을 부렸으나, 최근의 보호주의는 주도국가나 규제수단 측면에서 매우 다양화되는 추세

<1990년대 후반과 최근의 무역규제 상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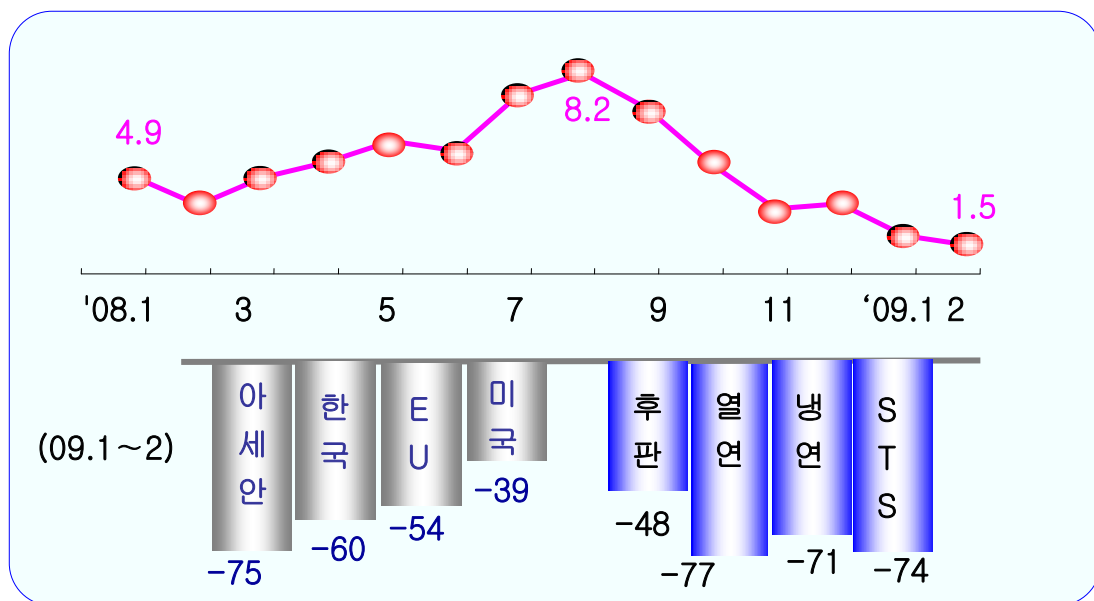
	과거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최근(2008년 이후)
당시 경기	아시아 외환위기, 선진국 중심의 IT버블 붕괴	60년 만에 사상 최악 경기 침체, 2차 대전 이후 최초 (-)성장
주도 국가	미국 일변도에 중국과 동남아 가세	미국 주도 하에 EU, 인도, 중국, 브라질, 동남아 등 다수 국가 가 세
역학 구도	수입국 수출국 대결구도	수입국과 수출국 구분 없이 전방 위적 대결 양상
규제 수단	무역관련 법규 중심, 관세, 쿼터, 세이프가드	다양한 법규(자국산 보호법 등) 규제, 관세, Buy 자국산, 수입허 가제 등

Ⅲ. 철강수출국은 수출확대에 전력

□ 보호주의 움직임이 강화되는 가운데서도 중국 등 주요 수출국들은 내수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수출확대에 총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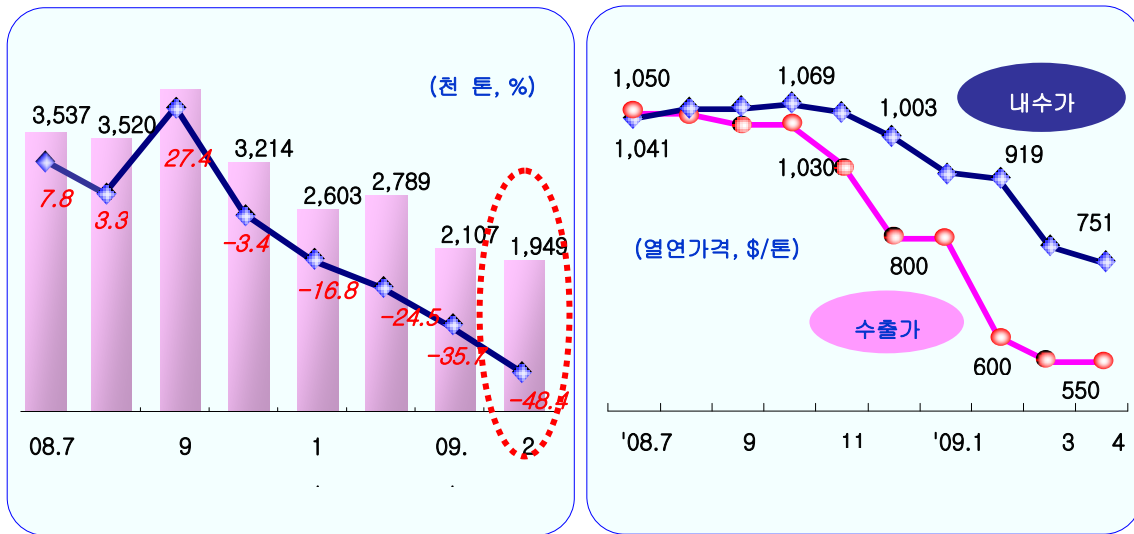
- 중국 정부는 2008년 12월 중저급 판재류와 봉형강류를 대상으로 수출세 폐지를 단행한 데 이어, 금년 4월에는 냉연과 도금강판, 전기강판, 스테인리스 냉연 등 고급강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율을 종래의 5%에서 13%로 인상
- 이러한 수출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경우, 향후 열연과 후판 등 범용강에 대한 수출증치세도 환급 예상

<중국의 월별 철강재 수출 추이, 백만 톤, %>



- 한편 일본도 수출 감소폭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
- 철강수출은 작년 9월 월간기준 신기록인 415만 톤을 기록한 이후, 10월부터 감소세로 반전함. 작년 10월 전년동월비 3.4% 감소를 시작으로 금년 2월에는 전년동월비 48.4%까지 감소폭이 확대
- 특히 2월 철강재 수출은 195만 톤으로 63년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

<일본의 월별 수출추이와 내수/수출가격>



- 이에 따라 현재의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철강사와 정부 공동으로 법률적 대응 및 로비 강화를 추진. 또 기술을 매개로 한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 기술협력 강화도 적극 추진하고, 해외 체류선이나 직접투자선 등 수직적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 계획
- 이와 함께 아시아 신흥지역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수출 드라이브를 강화하고, 신일철과 JFE는 관련 조직을 잇달아 재편
 -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지난 2월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정비가 철강 수급을 반전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철강업계와 동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정비 계획에 대한 정보를 긴밀히 공유
 - 인프라 정비 수요는 로컬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본은 조직 및 영업전략을 강화하면서 품질 차별화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
 - 신일철은 종래 해외영업부에서 담당하고 있던 건재수출업무를 건재영업부로 이관하는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고, JFE도 종래의 수출영업부를 냉연과 열연수출부로 분할하는 등 수출확대를 위한 조직 개편 실시
 -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급강과 신흥시장은 경기 회복 시에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는 전망 하에서 고급강 시장과 신흥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기회를 조기에 선점하기 위한 노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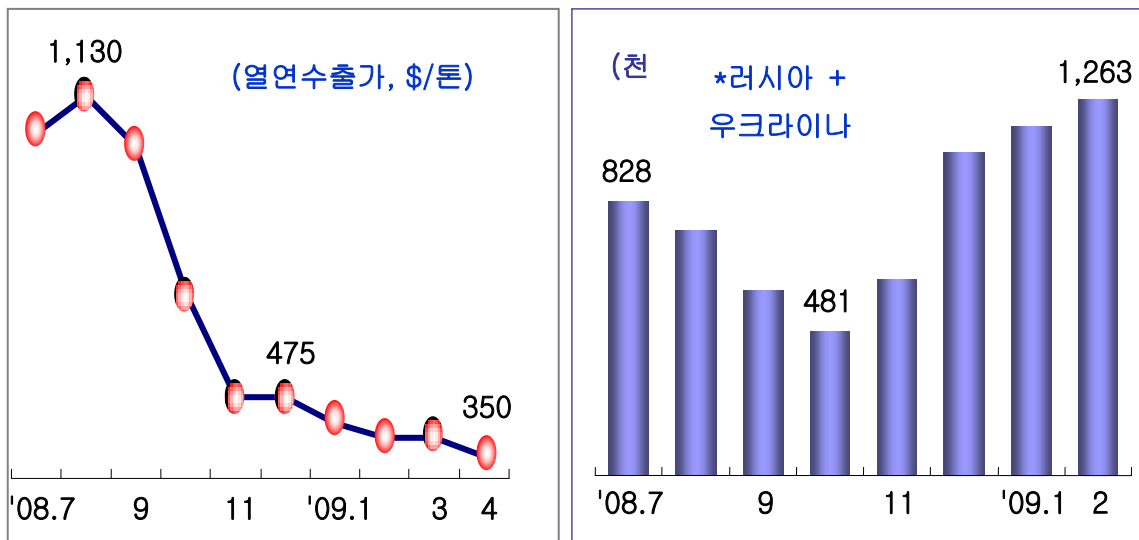
< 일본 고로사의 수출확대 조치 내용 >

신일철	JFE
○ 건재수출업무 이관(2008.4) - 해외영업부 → 건재영업부 - 건재영업부 내에 ‘건재수출그룹’을 구성, 수출확대 도모 ○ 남아공 사파르스틸 지분 투자(2008.12) - 열연강판 수출선 확보(연 7만 톤)	○ 수출영업부를 냉연/열연 수출부로 분할 강화 - 열연: 한국 강화, 신규시장 개척 - 냉연: 범용/일반강 수출 강화 ○ 수출총괄실 신설 - 수출전략 수립에 집중

□ 중국, 일본과 함께 대표적 순 수출국가인 CIS도 수출대상 지역을 전환함으로써 수출 확대에 안간힘

- CIS는 주요 수입국의 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수출대상 지역의 확대를 통해 수출 증가세 시현
 -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대해 저가의 철강재를 대량 수출함으로써 10월을 저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반전

< CIS의 월별 판재류 순수출 및 열연 수출가격 추이 >



- 한편 1/4분기 이후부터는 중국과 동남아권에 대한 수출 증대가 더 이상 어려워지면서 MENA(Middle East North Africa), 터키 등으로의 물량 전환을 시도

- 중국과 동남권에서는 그 동안 CIS산 철강재 유입이 급증하면서 최근에는 추가 주문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대 동남아 수출이 증가하면서 동남아 시장 확보도 여의치 않은 상황
- 러시아 NLMK(Novolipetsk)는 중국향 수출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EU, 터키, MENA 등으로 수출 확대를 추진 중

IV. 향후 전망과 시사점

□ 향후에도 글로벌 철강 교역시장은 한 축에서는 시장 방어,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시장 침투를 위한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이율배반적 상황이 지속될 전망

- 우선 시장 방어를 위해 수입규제 정책을 강화하는 국가들은 미국과 EU, 인도, 동남아, 브라질 등이며, 국가 혹은 산업보호주의라는 명목 하에 자국산 강재 사용을 유도하면서 시장 차단에 주력
-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펴고 있는 국가들은 중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일본 등이며, 주로 수출세 폐지나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신흥시장에 대한 정보 모니터링 강화, 관련조직 정비 등과 같은 조치가 중심
- 이와 같이 교역을 둘러싸고 이해가 상충함으로써 국가간 충돌이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American Wall 對 China Wall’은 이러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묘사

□ 결국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되는 상황 하에서는 불황기 마케팅과 단계적 접근이 필요

- 우선 국내 기업들은 국가별, 분야별 틈새시장 공략이 필요함. 즉,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나 글로벌 불황 하에서도 상대적으로 고성장이 기대되는 MENA 지역이나 인도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 추진이 필요
- 한편 보호주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차원에서도 자유무역 확산을 위한 국제적 공조와 동아시아 시장 안정을 위한 한중일 3국 간 긴밀한 협조 유도 필요

- 단기적으로는 불황기 마케팅이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시장을 지키고 생존할 수 있도록 근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

박현성 (e-mail: hypark@posri.re.kr)
공문기 (e-mail: mkkong@posri.re.kr)

☞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 둡니다.